

유치원 기간제 교사들 도교육감실 점거 농성

“무기계약직 전환 확약해달라”...대표 5명 4일째 퇴실 거부 “매년 원생 줄어드는데... 수용 힘들다” 전남도교육청 고민

전남도교육감 집무실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는 유치원 방과후과정 기간제 교사들에게 점거 당했다. 17일 현재 점거 4일째다.

전남 기간제교사를 대표하는 5명은 지난 14일 수개월간 담당부서와의 협의에도 진척이 없다는 이유로 장석웅 교육감과 면담을 가졌고, 재정부담-타시도 및 타직종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교육감이 확답을 주지 않자 퇴실을 거부하고 있다.

장 교육감은 “임기내 신분이 전환되도록 노력하겠다. 올 3월 1일자 고용관련해서도 학교별 평가에서 60점 이상인 분들은 재임용을 적극 검토하라고 학교에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감실 점거라는 투쟁 방식을 이어가고 있다.

유치원 기간제교사들이 교육감실을 점거한 이유는 고용보장에 대한 확답을 듣기 위해서다.

매년 3월 1일이면 학교장 책임 하에 기간제교사 채용절차가 이뤄지다 보니 근무하는 내내 신분이 불안정하고 이로인해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달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기간제교사들은 “신분이 안정돼야 원생 돌봄과 방과후 수업 모두 질이 올라간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이들은 교육공무원법상 ‘기간제교사’는 무기계약전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방과후돌봄사’ 또는 ‘방과후전담사’ 등으로 명칭 변경을 한 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2020년 3월 1일자 유치원 기간제교사 전원 명칭변경 후 무기계약직 전환”을 교육감이 직접 확약하지 않는 한 점거를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정원 전남지역 유치원 방과후과정 시간제 기간제교사 대표는 “교사 대부분이 10년 이상 상시적으로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매년 채용시즌이 되면 불안에 떨고 있다. 교육과 돌봄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교사들의 신분을 안정시켜줘야 한다. 허울 좋은 교사 직함은 필요없다”고 말했다.

전남교육청의 고민도 깊다.

출산율-농어촌 인구 감소로 가파르게 줄어드는 유치원 신입생 규모만 생각하더라도 이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 수년 내 과원(교사 과잉) 문제가 발생한다.

기간제 신분인 영어회화·스포츠 등 강사, 초중고 기간제 교사 등 타직렬과의 형평성을 따져보더라도 선불리 요구를 수용

하기 힘들다.

기간제교사 처우개선 관련 타시·도 동향, 교육청 재정부담을 살펴더라도 내년 3월 전원 무기계약직 전환을 확약하기엔 무리라는 게 교육청 판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문제를 논의할 전담팀을 꾸려 논의하자고 했으나 무기계약직 전환일자를 서약서에 서명해주기 전까지는 교육감실 퇴거를 하지 않겠다는 게 선생님들 입장”이라면서 “전남 교육 전체를 놓고 고민해야 하는 사안이지만, 선생님들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지역 유치원에서 시간제 기간제교사로 근무하는 이들은 657명이다. 모두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 근무시간은 지난해 기준 하루 3시간, 급여는 전문대졸 이상·교육경력 7년 기준으로 140만원 정도다. 매년 3월 채용과정에서 평균 70% 정도 재임용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사랑의 떡국 나눔 17일 광주시 북구 우산근린공원에서 열린 사랑의 떡국 나눔 행사장을 찾은 어르신들이 떡국을 먹기 위해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호남권 '미세먼지 배출' 737건 적발 29건 고발 조치

환경부 전국 2만3601곳 점검
불법 소각 현장 적발이 84%

환경부가 전국 자치단체, 산림청과 함께 지난해 하반기 진행된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 특별 점검 결과, 호남권에서는 73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돼 이중 29건이 고발 조치됐다.

환경부는 17일 지난해 10월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국의 '미세먼지 발생 핵

심현장' 2만3601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를 공개했다. 점검 대상은 생활주변 대기배출 사업장 6307곳(호남권 1140곳),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8296곳(1062곳), 농어촌 지역 등 불법소각 현장 8998곳(617곳)이다.

점검 결과 호남권에서는 737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불법 소각 현상이 617건(83.7%)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이중 505건은 주민제보, 112건은 총 5497만 3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은 58곳을 적

발해 9곳은 고발, 48곳은 75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은 62곳에서 먼지저지시설 미설치 등 위반사항이 드러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되고 있어 불법 소각 등 생활주변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며 “올해 2월에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봄철에 대비한 집중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홍희 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시교육청 TF팀 구성 교육현장 친일잔재 전수조사 교과 대응 방안도 모색

광주시교육청이 학교 등 교육현장에 남아있는 친일 잔재를 전수 조사한다.

광주일고, 대동고 등 광주 학교 상당수 교가를 친일음악가들이 만들었고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올해도 불리우고 있다는 광주시 용역보고(광주일보 2019년 1월 10일자 1면)가 나오면서다.

광주시교육청은 광주 교육 친일잔재 조사 및 청산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오는 28일 첫 회의를 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TF는 민족문제연구소, 역사교사 모임, 광복회, 광주시 각급 학교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 계획 수립, 학교별 친일잔재 청산에 필요한 가이드라인 설정, 기초 자료 수집·분석 방안 마련 등이 TF의 역할이다. 시교육청은 오는 3~8월 전수조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교명, 교패, 교기, 교복, 시설물 등 유무형의 친일 잔재다. TF는 동서남북 등 방위로 단순히 구분된 교명, 구령대·조희대·동상 등 시설물의 유래를 파악하기로 했다. 최근 광주시의 친일잔재 조사 용역 결과에서 드러난 친일 성향 작곡가들의 교가와 관련한 대응 방안도 논의된다.

광주시가 공개한 친일잔재 조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광주 각급 학교 교가의 작사·작곡가 중 친일 인명사전에 수록된 인물 4명의 이름이 확인됐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40	달뜨기	14:51
해질	17:46	달짐	04:16

화재 조심하세요
대기가 매우 건조한 가운데 맑은 날씨가 되겠다.

광주	맑음	-4/9	보성	맑음	-6/9
목포	맑음	-1/8	순천	맑음	-2/11
여수	맑음	0/10	영광	맑음	-6/8
나주	맑음	-6/9	진도	맑음	-2/8
완도	맑음	0/9	전주	맑음	-4/7
구례	맑음	-6/9	군산	맑음	-5/6
강진	맑음	-4/9	남원	맑음	-6/8
해남	맑음	-6/8	흑산도	맑음	3/8
장성	맑음	-6/8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	앞바다	서~북서	0.5~1.0	남서~서	0.5
남부	면바다	서~북서	0.5~1.5	남서~서	0.5~1.0
남해	앞바다	북서~북	0.5~1.0	서~북서	0.5
	면바다(동)	북서~북	0.5~1.5	서~북서	0.5~1.0
	면바다(서)	북서~북	1.0~1.5	서~북서	0.5~1.5

◇생활지수

뇌졸중	높음
감기	매우 높음
미세먼지	보통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4:30 17:27	11:43 23:45
여수	00:14 13:04	06:59 19:05

◇주간 날씨

19(토)	20(일)	21(월)	22(화)	23(수)	24(목)	25(금)
☀	☀	☀	☀	☀	☀	☀
-3/9	2/6	-3/7	-1/8	-2/6	-3/7	-2/6

광주·전남 내일 오후 비...주말 미세먼지 나쁨

주말인 19일 광주·전남은 남서해안 일부지역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전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도 이날 광주·전남을 다시 찾아올 것으로 예보되면서 탁한 날씨가 예상된다.

17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광주·전남은 19일 제주도 서쪽해상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오후 6시부터 밤 9시 사이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대한(大寒)인 20일 오전에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많고 비 또는 눈

이 날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주말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아침 최저기온 영하 5도~0도, 낮 최고 기온 4~7도)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19일 광주·전남 미세먼지 예보를 '나쁨' 단계로 전망했다. 이날 제주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기 정체를 인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보됐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어린이비타민캔디 당류 함량 과다...“섭취량 조절해야”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 비타민 캔디의 당류 함량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 때 당류를 과다 섭취하면 비만 등에 걸릴 뿐 아니라 나중에 성인병으로도 연결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몰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비타민 캔디 20개 제품에 대한 영양성분 함량을 시험한 결과 대부분이 당류로 이뤄져 있어 섭취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조사대상 20개 제품 1개당 중량은 1.1~1.43g이었는데, 1개당 당류 함량도 적게는 1g에서 많게는 1.39g까지 됐다. 1회 섭취량 당 당류 함량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권고하고 있는 가공식품을 통한 어린이 1일 당류 섭취 기준량(37.5g)의 10~28% 수준에 달했다.

일반 캔디로 분류된 9개 제품은 당류 함량이 표시되었지만,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된 11개 제품은 함량 표시조차 없었다.

/김한영 기자 young@

大山 프리모 남녀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옥상 스틸방수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 (슬라브, 옥상)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지붕공사

한옥, 사찰, 축사, 하우스
데스리, 펜션, 전원주택 등 시공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 가능!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최신공법의 특수 방수! ▶냉난방비 절감 효과!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TWIN STEEL 트윈스틸 (모던건설)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